

---

## 한국어 교원과 국어 능력

우창현 · 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교수

---

### 1. 서론

국내외에서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은 그동안 꾸준히 하게 발전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 및 결혼 여성 이민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 등 몇몇 국가 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한국어 교원 양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원은 현재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다. 다만 위에서 논의했던 특수 목적의 한국어 교원들은 지금까지 주로 비학위 과정을 통해 양성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위 과정을 통해 양성된 한국어 교원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 모두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

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한국어 교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바탕으로, 이후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한국어를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다만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국어 능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즉 국어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국어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 간 이견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생각해 보아야 할 다음 문제는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국어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현재 한국어 교원들이 어느 정도의 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의 문제이다. 이는 이러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향후 이들에게 국어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국어 능력 실태를 파악한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왜 한국어 교원이 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국어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조사 범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2. 국어 능력의 필요성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의 국어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한국어 교육이 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등 국어 능력과 절대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영순(2005)에서는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한국어에 대한 실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한국어 교원은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전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영어와 같은 주요 언어와 대조 분석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박영순(2005)의 논의는 한국어 교원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와 한국어를 대조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국어 능력을 훨씬 넘어선 정도의 국어 능력이 한국어 교원에게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현식(2005)에서는 한국어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교육자적 자질, 언어적 자질, 언어 교육자적 자질’로 구분하였다. 민현식(2005)에서 논의하는 자질 중 언어적 자질이 우리가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어 능력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 민현식(2005)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언어 교육자는 교육할 대상 언어를 통달하고 진심으로 언어를 사랑하며, 그 언어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하여야 하고, 언어 교육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현식(2005)에서 한국어 교원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영어와 학습자의 모어에 대하여 알고 또 이들 언어와 대조 언어학적 비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민현식(2005)의 논의는 박영순(2005)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 강승혜(2010)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전문성’을 구성하는 측면을 ‘지식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인성 및 태도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지식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다시 한국어에 대한 지식, 한국어에 대한 지식, 수업 운영과 관련된 지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강승혜(2010)의 논의 중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어 능력과 관련

---

1) 이외에 어떤 종류의 한국말도 다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하며, 표준 한국어를 정확히 구사하고 주제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승혜(2010)의 논의는 국어 능력의 범위를 한국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논의했던 박영순(2005), 민현식(2005)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여러 논의들에서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국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현재 한국어 교원들의 국어 능력을 파악하고 또 필요한 만큼의 국어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sup>2)</sup>

한국 사람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어기본법’에 국어 능력 평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어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표현 능력(말하기·쓰기 능력), 이해 능력(듣기·읽기 능력), 문법 능력 등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국어 능력이라면 동시에 한국어 교원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한국어 교원들의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평가는 단순한 국어 능력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중심의 설문 조사 혹은 또 다른 전문적인 국어 능력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평가 혹은 설문 조사를 통해 실제적인 한국어 교원의 국어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확인된 결과를 통해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 등이 모색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2) 현재는 한국어 교원들의 국어 능력에 대한 실태도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 3. 국어 능력 조사 범위

먼저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국어 능력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sup>3)</sup>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국어 능력의 범위를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문법 능력', '한국어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 능력'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국어 능력의 범위를 이처럼 제한하는 이유는 이러한 국어 능력이 한국어 표현 교육, 한국어 이해 교육, 한국어 문법 교육 등 한국어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3.1. 말하기 능력

말하기 능력은 단순히 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말하기 방법(화법)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말하기 능력에 대해 전은주(2008)에서는 사적이면서 개인적인 음성 언어 의사소통 상황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성 언어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생성하여 상대방과 상호 교섭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하기 능력을 국어 능력의 일차적 표지로 규정하고 있다.

---

3) 민현식(2005)에서는 한국어 교원이 알고 있어야 할 국어 능력과 지식의 범위를 구어 능력, 문어 능력, 한국어학적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민현식(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어 능력은 표준 고급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어 능력은 문장력과 독서력 등 한국어 문어에 대한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학적 능력은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형태론, 한국어 품사론, 한국어 문장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화용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한국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며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교재 개발 등에서 문법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말하기는 한국어 표현 교육과 긴밀한 상관이 있다. 즉 한국어 표현 교육의 주요 내용이 말하기, 쓰기 두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말하기는 이러한 두 영역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어로 유창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하기 능력은 한국어 교원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 3.2. 듣기 능력

듣기 능력은 음성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어 듣기 능력이라 함은 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듣기 역시 의사소통 활동과 관련된 기능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은지·오현진(2008)에서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반응을 준비하거나, 수업 시간에 교원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모든 것이 듣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시를 듣고 그에 알맞은 행동을 하거나, 대중교통에서의 안내 방송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는 등의 활동 역시 듣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듣기는 말하기와는 달리 한국어 이해 교육과 상관이 있다. 즉 한국어 이해 교육이 주로 듣기, 읽기로 구분되는데 듣기가 이러한 이해 교육의 두 영역 중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듣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듣기 능력 역시 한국어 교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3. 읽기 능력

글을 읽는다는 것은 문자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가 그 의미를 해석하고 엮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료에 드러나 있거나 숨어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통합 조정해서 독자가 의미를 엮어 가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방인태 외, 2000).

읽기는 듣기와 함께 한국어 이해 교육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즉 한국어 이해 교육의 주요 내용이 듣기, 읽기 두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읽기는 이러한 두 영역 중 중요한 한 영역을 구성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어 교원이 한국어로 쓰인 글을 정확하게 이해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읽기 능력 역시 한국어 교원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읽기 능력은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어휘력과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한다.

### 3.4. 쓰기 능력

쓰기 능력은 단순하게 자음과 모음을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진숙(2008)에서는 쓰기에 대하여 문자 기호를 조합하여 만든 일련의 문장들이 형식적인 응집성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춘 것을 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글을 쓸 때 비로소 ‘글을 쓴다’고 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결국 쓰기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고(김정숙, 1999: 195, 원진숙, 2008: 454 재인용), 쓰기 능력이란 이러한 작문 활동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쓰기는 한국어 표현 교육과 상관이 있다. 즉 한국어 표현 교육이 주로 말하기, 쓰기로 구분되는데 쓰기가 이러한 표현 교육의 두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쓰기 능력 역시 한국어 교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5. 문법 능력

문법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 기능 교육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문법을 통해 문장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면 제대로 말을 하거나 듣기, 읽기,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법 능력 역시 언어 기능 측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법은 넓게는 한 언어의 형태, 구조, 의미 규칙을 포함한 전체 언어의 특징을 말하고 좁게는 문장의 구성 원리와 규칙을 말한다(정주리·고은숙, 2008: 123). 다만 일반적으로 국어 능력을 이야기할 때 논의되는 문법 능력은 넓은 의미의 문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문법 능력은 자음, 모음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문장의 구성, 문장의 의미, 문장의 사용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법이 한국어 표현 교육, 한국어 이해 교육 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한국어 교원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겠다.

### 3.6. 한국어 어문 규정 이해 능력

한국어 어문 규정은 크게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 어문 규정은 한국어 교원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즉 일반인들도 알고 있어야 할 만큼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규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없다. 특히 표준 발음법이나 띄어쓰기 규정 등의 경우 실제 발음 교육, 쓰기 교육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어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 역시 문법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

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어 교원들의 경우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한국어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 능력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있다.

## 4. 국어 능력 실태 조사 방법

### 4.1. 국어능력시험 활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어능력시험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위탁 실시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 주로 문법 능력, 이해 능력(듣기·읽기 능력), 표현 능력(말하기·쓰기 능력), 창의적 언어 능력, 국어 문화 능력 등을 평가 영역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는 언어 기초 영역(수행 기반 능력(어휘), 언어 규범 능력(어문 규범)), 언어 기능 영역(담화 능력(듣기·말하기), 독해 능력(읽기), 작문 능력(쓰기)), 사고력 영역(사실적 이해, 추론, 비판, 이해) 등을 평가 영역으로 하고 있다.

이 두 시험이 이처럼 형식적인 부분에서 일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 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문 규범 등을 주요 평가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평가 내용들은 위 3장에서 다룬 한국어 교원들이 갖추어야 할 국어 능력 영역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원들의 일반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시험은 한국어 교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원들에게 필요한 국어 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원들에게 필요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적인 평가 방법 혹은 조사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4.2. 설문 조사

한국어 교원들의 경우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전문화된 국어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등 국어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전문화된 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어 문법의 경우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 문형 구성에 대한 이해 능력을 보다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면, 아니면 한국어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의 경우 일반적인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된소리 되기’, ‘소리의 첨가’ 등 실제 한국어 발음 교육에 필요한 어문 규범에 대한 이해를 더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단순한 국어 능력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을 전제로 한 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설문 조사 등의 조사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 조사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각 영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역별 한국어 교육 내용 등을 반영한 설문 조사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이 글은 한국어 교원들에게 왜 국어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어 능력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 박영순(2005), 민현식(2005), 강승혜(2010)의 논의를 참고하여 이들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기본적인 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국어 능력 조사 범위에 대해 국어 능력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한국어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이들 영역이 일반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면서 동시에 한국어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어 능력 실태 조사 방법에 대해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국어 능력 실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조사 방법을 구분한 이유는 한국어 교원의 경우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국어 능력까지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강승혜(2010),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각한 '좋은' 한국어 교사의 특성, 《한국어교육》 2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영선(2007), 한국어 교사 육성에 따른 현안과 해결 과제, 《제28차 추계 학술 대회 발표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5), 한국어 교사론, 《한국어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동호(2009), 한국어 교사 교육학을 위한 내용학, 《제19차 국제 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방인태(2000), 《초등 국어과 교육》, 박이정.
- 박영순(20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
- 박영순 외(2008),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학》, 한국문화사.
- 안수정(2011), 한글학교 교사 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원진숙(2008), 한국어 쓰기 교육,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이희승·안병희(1994), 《새로 고친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전은주(2008), 한국어 말하기 교육,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정주리·고은숙(2008), 한국어의 문법,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최용기(2009),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제19차 국제 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최은지·오현진(2008), 한국어 듣기 교육,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사.
- 최주열(2007), 한국어 교사의 위상 제고 방안, 《제28차 추계 학술 대회 발표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재영 외(2004),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박이정.
- 허용(2009), 한국어 교사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제19차 국제 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Young-me Yu Cho(2009), 국외 한국어 교사의 기능과 역할, 《제19차 국제 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